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WE BELONG
가제 : 우리가 속한 세계
저자 : Cookie Hiponia Everman
출판사: Dial Books
발행일: 2021년 초 예정
분량 : 미정
장르 : 9세 이상/문학

*** 타갈로그 신화와 한 이민가족 이야기가 만나 새롭게 탄생한 감동적이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

스텔라와 루나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Hapa (아시아계와 혼혈인 미국인)'이다. 두 자매는 엄마가 어린 시절 필리핀을 떠나 미국으로 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둘에게 엄마의 나라, 필리핀은 미지의 세계였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자매는 더 이상 달이나 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엄마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졌다. 엄마 엘지는 두 딸에게 자신이 밤마다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는 다 자신의 이야기라고 말하면서 달의 여신 마야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마야리 가족은 천상의 왕국에 사는 사람들 보다 네 배는 더 많이 일해야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이었다. 사실 마야리 가족의 신화는 어린 시절 엄마, 엘지네 가족의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있었다. 엘지는 그래서 두 딸들에게 마야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한 것이다.

마야리 가족의 이야기는 그녀의 동생 탈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 된다. 갓 태어난 탈라는 미야리의 작은 별과 같은 존재였다. 다른 가족들이 일하느라 바쁜 시간 동안 마야리는 탈라를 돌보며 동생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했다. 해가 가장 높이 솟아 있는 때가 오면 온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와 소소하지만 행복한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모든 동화들이 그렇듯 그 마법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유난히 해가 길었던 그날, 마야리의 엄마인 나나이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나나이는 하늘의 신 바탈라를 애타게 불렀다. 그러자 곁에 있던 마야리의 아빠 타타이가 자신이 바로 그 바탈라이며 나나이와 사랑에 빠져 왕국의 삶을 버리고 인간 세상에서 살게 된 것이라고 고백했다. 타타이는 죽어가는 아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부부가 만나게 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 주었다. 타타이와 나나이가 만나 사랑에 빠진 건 19년 전이었다. 타타이 즉 바탈라는 어느 날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둘러보기 위해 물소로 변장하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가 한 여인이 강에서 목욕을 하며 부르는 아름답고 달콤한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다. 바탈라는

그 여인이 놀란 모습을 보고 당황하는 바람에 일단 숲 속으로 도망쳤다가 다음 날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그 강에 찾아왔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 그녀를 찾으러 강에 온 지 일곱 번째가 되던 날 바탈라는 그녀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빨랫감을 가지고 다시 강으로 오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바탈라는 정중한 모습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빨랫감을 들어주겠다고 말했고 그녀 역시 웃으며 바탈라에게 빨랫감을 건넸다. 이것이 바로 타타이와 나나이의 첫 만남이었던 것이다. 타티아가 말을 마치자, 겨우 정신이 또렷해진 나나이는 타티아에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진짜 집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나나이는 자신의 아이들인 쿠야, 아폴라키, 탈라, 마야리를 차례로 쓰다듬으며 마야리에게 형제들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나나이는 마야리가 자신들을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자 마야리의 뺨을 찰싹 때린 후 자신을 두고 어서 하늘로 떠나라고 차갑게 말하며 등을 돌려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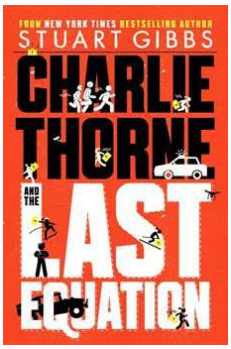
루나와 스텔라는 이 이야기를 듣던 중 엄마에게 나나이를 이해 할 수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나이가 자식을 버린 나쁜 엄마라고까지 말했다. 엘지는 딸들의 원성에도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묵묵히 있을 뿐이었다. 엘지의 엄마도 그런 나쁜 엄마였기 때문이다. 생활고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지쳐 있던 엘지의 엄마는 자주 엘지의 몸에 손을 댔다. 엘지의 엄마에 비하면 마야리의 엄마는 천사였다. 엘지는 평생 동안 친엄마가 아닌 마야리의 엄마처럼 자신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해줄 용기 있는 엄마를 찾고 있었다. 엘지는 북받쳐 오르는 슬픈 마음을 꾹 누르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마야리의 남매들은 결국 엄마를 땅에 남겨 두고 천상의 왕국으로 가게 되었다. 왕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몰래 수군거리며 형제 자매들을 맞이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 또한 이 왕국에 걸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하는 곳에 온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처럼 땅의 인간이자 하늘의 인간이 아닌 온전한 하늘의 인간들인 아버지의 또 다른 자식들을 만나게 되었다. 마야리와 나머지 형제 자매들은 왕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버지의 다른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왕국의 군대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했다. 왕국 사람들은 여전히 땅에서 온 바탈라의 자식들을 향해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마야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점점 전사의 기질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바틸라도 그런 미야리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이자 왕국의 왕 바탈라는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 하게 되었다. 그는 마야리에게 달이라는 뜻을 가진 새로운 이름을 선물했고 나머지 형제 자매들에게 왕국의 수호자가 되어달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겼다. 아웃사이더이자 이민자 신분이 된 이 남매들은 과연 왕국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될까? 타갈로그 신화와 현실 속 엘지와 딸들의 이야기가 중첩되면서 벌어지는 신비롭고도 따뜻한 이야기이다.

<저자 소개>

쿠키 히포니아 에버만 (Cookie Hiponia Everman)은 필리핀에서 태어나 아홉 살 때 미국으로 이민왔다. 전업 작가가 되기 전 비디오 게임 에디터로 일한 바 있다. 『We Belong 』은 그녀의 첫 작품이다.

제목 : CHARLIE THRONE AND THE LAST EQUATION
가제 : 찰리와 판도라의 상자
저자 : Stuart Gibbs
출판사: SIMON & SCHUSTER BOOKS
발행일: 2019년 9월 17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9-12세 모험



*** 베스트셀러 작가 스튜어트 깁스의 새로운 시리즈!**
*** 아인슈타인을 잇는 세계 최고의 천재소녀가 벌이는 위험천만한 모험담**

1955년 4월 미국 프린스턴.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죽어 가고 있었다. 그의 곁에 있던 젊은 의사는 아인슈타인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바깥에서는 아인슈타인 집에서 일하고 있는 헬렌이 누군가에게 다급히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고 아인슈타인은 갑자기 일어나 의사의 손목을 잡고 독일어로 '방정식을 지켜야 해!'라고 외쳤다. 의사는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었다. 이윽고 누군가가 급하게 계단을 올라오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헬렌과 통화했던 사람인 것 같았다. 아인슈타인은 마지막으로 '판도라의 상자'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끝내 숨을 거두었다. 얼마 후 아인슈타인의 오랜 친구인 에른스트 클라인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는 잠옷 차림에 맨발이었다. 그는 손을 덜덜 떨며 의사에게 아인슈타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소리라도 비슷하게 내보라고 간청했다. 의사는 다른 말은 몰라도 '판도라'라는 말은 정확히 발음 할 수 있었다. 에른스트는 아인슈타인이 마지막까지 하고 있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단번에 알아챘다. 에른스트는 의사에게 모든 결정을 자신에게 위임하라는 아인슈타인의 유언장을 보여주며 그의 사망신고를 하루 늦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사를 내보낸 에른스트는 아인슈타인의 부탁에 따라 그 천재 과학자가 남긴 모든 지적 유산을 불태웠다. 곧이어 에른스트는 바깥에서 자동차 두 대가 급하게 멈추며 내는 굉음을 들었다. 에른스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그들이 이곳에 들이닥친 것이다. 화염은 에른스트까지 집어 삼키려 했지만 그는 의문의 남자들이 자신에게 총을 겨눴던 순간까지도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불 속으로 던졌다. 그리고 마침내 아인슈타인이 남긴 모든 것들이 지상에서 사라졌다.

현재, 미 중앙정보국 CIA 총 책임자 자밀라 카터는 찰리 쏜의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아인슈타인이 남긴 판도라의 상자를 찾기 위해 무려 70년 동안이나 애를 쓰고 있었지만 아직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상태였다. CIA 요원 단테 가르시아는 자밀라에게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때가 되었다며 사진 속 소녀 찰리 쏜이 이제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밀라는 겨우 열두 살 밖에 안된 소녀에게 이렇게 큰 일을 도무지 맡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찰리가 십년만 더 일찍 태어났더라면 분명 CIA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을 것이다. 찰리의 모습은 도저히 어느 인종인지 구분이 안 가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이 외모라면 지구상

어디로든 파견 되어도 전혀 의심을 받지 않을 훌륭한 요원 감이었다. 하지만 찰리가 가진 강점은 단지 그 독특한 외모가 아니었다. 찰리는 CIA 역사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 벌써 12개의 언어를 구사했고 이미 대학에서 고등 수학과 물리학 이론을 배우고 있는 천재였다. 찰리는 역사, 과학, 수학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말 그래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소녀였다. 찰리는 그야말로 환생한 알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존재였다. 결국 자밀라는 마음을 바꾸고 비밀리에 이 소녀와 판도라 상자를 찾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이 프로젝트는 오직 자밀라와 단테 그리고 그의 동료 밀라나만 아는 비밀 프로젝트가 되었다.

한편 찰리에게 대학 수업은 너무나 지겹기만 했다. 동료 학생들은 자신보다 열 살이나 어린 천재 소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고 뒤에서 틈만나면 수군거리기 일쑤였다. 찰리는 지루하게 학교 생활을 버티느니 차라리 시험 날에만 학교에 가고 나머지 시간엔 자전거를 타거나 스키를 타면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찰리에게도 비로소 흥미로운 일이 하나 생겼다. CIA 요원 밀라나가 그녀를 찾아온 것이다. 찰리는 늘 자신이 가진 천재성 때문에 언젠가 누군가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언제 어디서나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다. 찰리에 추측과 계산에 따르면 미란다는 분명 불청객이었다. 찰리는 그 자리에서 곧 도망쳤다. 미란다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 미리 다른 지점에서 대기 하고 있던 단테에게 소녀가 달아났다는 소식을 알렸다. 두 요원은 인류의 미래를 구할 그 소녀를 절대 놓칠 순 없었다. 한편 숲으로 도망친 찰리는 미리 배워둔 무술 실력을 이용해 한 남자를 제압했고 남자의 트럭과 핸드폰을 훔치는데 성공했다. 찰리는 아직 면허도 없는 자신의 실력을 믿고 빙판 길을 호기롭게 달렸다. 하지만 곧 트럭이 뒤집혔고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눈을 뜬 찰리는 자신이 제트기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찰리는 이전에 단테의 얼굴을 본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고 그제서야 자신이 CIA의 손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요원은 아인슈타인이 만든 방정식을 찾아 내기 위해서는 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만들어낸 그 수식이 인류의 삶을 훨씬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인류에게 커다란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무기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그는 이 세상 어딘가에 그 방정식을 꽁꽁 숨겨놓았다. 그 방정식의 이름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였다. CIA 요원들이 이 방정식을 찾으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더 푸리스'라는 테러 조직이 이 방정식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백인우월주의자 집단으로 이민자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테러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세계를 집어 삼킬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찰리의 임무는 아인슈타인이 판도라의 상자를 숨겨둔 곳에 대한 단서로 남겨둔 복잡한 암호를 풀고 그들 보다 먼저 방정식을 찾아 세상을 지키는 것이었다. 뛰어난 지능과 용기, 정의감까지 모두 갖춘 한 소녀의 모험담이다.

<저자 소개>

스튜어트 깁스는 『 FunJungle Series』 ,『 Moon Base Alpha Series』와 『 Spy School Series』 등의 저자이다.